

# 고흥군, 전남도·육군 교육사령부와 드론 업무협약

### 차세대 드론산업 협력체계 구축·드론기업 유치 활성화 기여 국내 최대 시범공역 보유...항공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고흥군은 2일 대전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전남도, 육군 교육사령부와 차세대 드론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에는 전남도 윤병태 정무부지사, 송기근 고흥군수, 박상근 육군 교육사령관 등이 참석해 업무협약서 교환과 기념품 전달의 시간을 가졌다.

고흥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시범공역(직경 22km, 고도 450m, 면적 380km<sup>2</sup>)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센터, 국가중합비행성능시험장, 우주항공협

단소재센터 등 다양한 항공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드론산업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고흥군의 드론산업 인프라 여건을 바탕으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드론산업 관련 분야에 관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고흥 항공센터 인근에 건립중인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의, 드론과 관련한 드론봇 챌린지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협력하여 개최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 분야 드론 운영 매뉴얼 공동개발 및 실증과 드론 관련 협력사업 공동 발굴을 위한 협이도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시 3개 기관이 상호 협력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군의 드론 수요가 광활하기 때문에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 드론기업의 큰 수요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유치와 고흥 드론산업 발전에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드론기업 입주시설인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는 2019년 12월 착공하여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

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군은 올해 말까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유치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흥=김택영기자

## 여수시, 농업의 가치 이해 도시소비자 육성

여수시가 농업의 가치 이해와 우리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우리농산물 바로알기 소비자교육' 1~2기 수강생 50명을 12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우리농산물 바로알기 소비자교육은 5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기수별로 25명씩 4회(1회/주) 진행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교육은 농업·농촌·농산물 기초 지식부터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 농산물(감자, 무) 수확체험, 가공품생산과정 견학 및 현장체험(고추장 만들기, 새싹보리 심기 등) 등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도록 구성했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농업인, 농업인학습단체는 신청 불가하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홈페이지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촌진흥과(☎ 061-659-4433)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오상호기자

## 보성군, 산림분야 근로자 주기적 코로나19 검사로 방역 대응

### "일자리 추진 차질 없도록 지역민 건강까지 챙겨나갈 것"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산림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보성군은 지난 8일 근로자 전원에게 선제적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

또한, 6일과 7일 산림분야 일자리사업 근로자 60명은 각 작별로 안전보건

직무와 코로나19 예방 관련사항에 대하여 집중 교육을 받았다.

보성군 2021년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은 도로변의 가로수 전지작업을 물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특히, 특량면 오봉산의 역사 문화 자원을 대국민 치유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숲 정비를 병행하면서 온돌 문화 구들장 채취장 및 운반 우마차길

을 복원하고, 해평호수변 숲 가꾸기와 숲속길 개설, 감국 식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성군 일자리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건강까지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택순기자

## 광양시, 섬진강 재첩 생산 편의시설 조성

광양시가 2018년 국가 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의 어업환경 개선과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광양 섬진강 재첩 생산 어업인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본 사업은 국가 중요어업 유산을 보유한 자치단체에 3년간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 중요어업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재첩 손틀어업의 보전관리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9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재첩 손틀어업의 보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업인들에게 어구와 안전 슈트를 지원했다.

사업장소는 재첩 손틀어업인의 이용률이 높고 재첩 주요생산지인 원동포구(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194)이며, 총사업비 1억 9천 1백만 원(국비 70%, 시비 30%)으로 포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편의시설(휴게공간, 화장실)을 설치한다.

광양=심종섭기자

## 광양시 공동주택 입주 시작·옥곡면 인구증가 효과 '톡톡'

### 3월말 기준 옥곡면 인구 4408명...전월 대비 천여 명 증가



광양시 도시개발 사업 단지인 광영·의암지구가 옥곡면 인구 증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옥곡면 인구가 지난 3월 30일 기준 4,408명으로, 전월 대비 무려

1,096명이 증가했다.

지난달부터 광영·의암지구 내 공동주택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면 지역의 상실을 보완하고 인구 유입으로 연결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인근 신규 일반산단과 태인 국가산단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가족 상당수가 전입한 것으로 보인다.

시내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고 출·퇴근 거리가 가까워 젊은 층을 중

심으로 '일과 삶의 균형' 추구 흐름에 맞춰 지역 간 이동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올 연말까지 성황 도이지구 등 7개 단지 4,334세대의 공동주택 입주가 진행되고 교통, 공공기관 등 인프라가 확충되면 인구 유입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승재 인구정책팀장은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하락 속에서도 광양시는 정주여건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 삶의 질 제고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기자



## 순천시, 정원식물 산업화 위한 4자간 공동연구·업무협력 협약

### 희귀식물 분양·증식기술지원 등

순천시는 정원식물 산업화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남 농업기술원, 산림자원연구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4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정원식물 공동연구를 비롯한 신품종, 희귀식물 분양, 증식기술지원, 박람회장 경관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수국을 순천만국가정원에 식재하여 '가든

적응성'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증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후계목을 비롯한 희귀수목 39종을 분양하고 증식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4개 기관은 공동연구를 통한 신품종 정원식물과 희귀수목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 경관조성용으로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보존하기로 해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와 함께 정원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